



뉴스 문화/교육/공연/스포츠 칼럼/논단/인물 지방자치 진주TV 회사소개 진주사이버미술관 핫 이슈 6.1지방선거소식

홈 > 칼럼/논단/인물 > 칼럼

독자기고 / 김석구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진주뉴스 | 입력 2022.04.29 16:54 | 댓글 0

기사



가정의 달 5월 부모님 효도선물 '농지연금'



김석구 부장

코로나바이러스-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많은 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지도 못하는 현실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다.

행사가 많은 5월이다. 기념행사는 축소되고 즐거워야 할 행사는 다소 무겁고 침체된 상황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어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 우울,

불안 증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46.8%로 절반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고령화가 이뤄진 농촌의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고령 농업인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연스레 농가소득 감소도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자녀들과의 왕래도 줄어들어 고령농업인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최신뉴스

- 경상남도, 영화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경남 눈에...
- 고성군, 화진포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경상남도, 안철수 인수위원장, 항공우주산업의 메...
- 남해군 재향군인화여성회 하숙회, 행정안전부장...
- 남해의 숨은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포토뉴스



경상남도, 영화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경...

인기뉴스

- 하삼봉 진주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

